

2007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한·일 해저터널 전문학회 세미나

- 일 시 : 2007. 10. 11(목) 오후 2:30 ~ 5:00
- 장 소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409-1호
- 주 최 : 대한토목학회

2007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한·일 해저터널 전문학회 세미나

- 일 시 : 2007. 10. 11(목) 오후 2:30 ~ 5:00
- 장 소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409-1호
- 주 최 : 대한토목학회



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연구원

전문학회에서 「한일해저터널건설은 가능성이 있는가」
논제발표에 즈음하여



「한일해저터널건설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논제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개최하여 좌장을 맡은 본인으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토목학회 박창호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제에 발표해 주실 이장출 부경대 교수님, 신장철 숭실대 교수님, 허재완 중앙대 교수님과 토론자에 참여하신 안용모 대구시청 정책개발담당 국장님, 정현영 부산대 교수님, 노자와 다이쥬(野澤太三) 일한터널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행정자치부 문정식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과거 역사의 경험과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볼 때 21세기의 세계는 동북아시아가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가 급변하는 새로운 거대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유럽공동체 국가 EC는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등이 구성한 NAFTA에 대항하기 위하여 처음에 12개 국가로 구성 운영한 결과 평가가 좋아서 현재 27개 국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체 국가는 상호 협조 체제로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평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등 새로운 국제 질서로 빠르게 재편 되면서 지역 블록화 현상은 필연적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양국은 국가이익과 경제적 이해타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편협한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범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건설은 유럽터널건설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분석에 의하면 동 해저터널건설 구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86년 12월부터 1993년1월 까지 만 6년간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건설관 근무 당시 본국으로 부터 일본 사가현 가라쯔(佐賀縣 唐津)에 동 해저터널조사용 사항(斜杭)을 굴착중인 것을 조사하라는 훈령을 받아 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한터널연구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가라쯔(唐津) 진자이쥬(陳西町), 이기섬(壹岐), 쓰시마(對馬島) 등지를 수신회 걸쳐 현장을 파악하고 동연구회 정기총회, 분과위원회 등 각종 회의 행사에 참석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일한터널연구회는 1993년에 순수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연구해 오다가 2004년에 내각부 승인을 받고 NPO(특정비영리활동법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걸맞게 한일해저터널연구원을 처음 건설교통부에 사단법인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나도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자진 반려하고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2006.3.31일부로 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연구원으로 승인 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연구원과 일한터널연구회 간에 한일해저터널기술 및 정보교류 등 업무 협력 합의를서를 2006년 10월 24일에 체결하여 양국 간의 교류의 첫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2007.2.21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해저터널연구개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토론자에 오즈카 시게루(大塚茂)부회장이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석한 분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및 지역개발 등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한 유익한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4월22일 부산 KNN(이전의 SBS계열 TV방송국, 부산지역 6채널, 그 외 지역은 12채널)TV방송국의 시사진단 프로그램인 한일해저터널건설 관련 찬반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일해저터널건설이 우리 경제와 부산지역 개발등에 크게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유러터널 개통 10년의 분석자료에 의하여 동 해저터널 건설의 시사성을 밝힘으로써 주변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을 5월14일에 개최한바 한일해저터널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부산지역 경제와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발전 시킬 것을 밝혔습니다.

한일해저터널건설 구상에 대하여 토목인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 대구지방학술대회 특별세션을 2007년10월11일에 갖게 된 것을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시대에 걸맞는 사고력을 갖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07. 10. 3

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연구원 이사장 박 경 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회장 박 경 부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회장 박 경 부

한·일 해저터널 전문학회 세미나 일정

1. 제 목 : 2007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 일 시 : 2007. 10. 11(목) 오후 2:30 ~ 5:00

3. 장 소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409-1호

4. 주 최 : 대한토목학회

5. 발표자 및 토론자

- 좌장 : 박경부(한일해저터널연구원 이사장)
- 발표위원 : 3명(각25분 발표) - 총 75분
 - 허재완(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이종출(부경대 건설공학부 교수)
 - 신장철(숭실대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 토론위원 : 3명(각 15분 발표, 일본토론자 1명 참석) - 총 45분
 - 안용모(대구시청 정책개발담당관)
 - 정헌영(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노자와 다이쥬(일한터널연구회 회장)
- 질의응답 : 30분

6. 전시회

- 일시 : 2007. 10. 11(목) ~ 10. 12(금)
- 장소 :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벤션홀 2(전시장소 : D-11)

목 차

한·일 해저터널의 국토과급효과 검토

1

허 재 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한·일 해저터널의 토목공학적 전망

20

이 종 출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일 간의 해저터널건설

- EU(유럽연합) 사례로부터의 교훈

31

신 장 철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학과 교수)

2007 年大韓土木学会 定期学術大会
韓・日海底トンネル専門学会セミナー

●日時：2007. 10. 11（木）午後 2:30～5:00

●場所：EXCO(大邱展示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409-1 号

●主催：大韓土木学会

— 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 —

2007 年大韓土木学会 定期学術大会
韓・日海底トンネル専門学会セミナー

●日時：2007. 10. 11（木）午後 2:30～5:00

●場所：EXCO(大邱展示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409-1 号

●主催：大韓土木学会

— 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 —

専門学会で「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は可能性はあるのか」

論題発表にあたって

「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は可能性はあるのか」という論題発表は、多くの人々の関心と参加の中で開催され、座長を任された私としては大きな栄光です。またこの場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大韓土木学会パク・チャンホ会長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論題を発表してくださるイ・チャンチュル釜慶大教授、シン・チャン Chol 崇実大教授、ホ・ジェワン中央大教授と、討論者として参加してくださるアン・ヨンモ大邱市庁政策開発担当局長、チョン・ホニョン釜山大教授、野沢太三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長、そして司会をしてくださる行政自治部ムン・チョンシク課長にこの場を借りて感謝の意を表します。

過去の歴史の経験と未来志向的な展望から、21 世紀の世界は東北アジアがリードす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世界が急変する新しい巨大経済共同体が形成されているヨーロッパ共同体国家 EC は、アメリカを始めとするカナダなどで構成される NAFTA に対抗するため初め 12 か国家で構成、運営した結果、評価がよく現在 27 か国家に増加しました。共同体国家は相互共助体制により経済だけでなく、政治、平和に大きく寄与しているなど新しい国際秩序として早い勢いで再編されながら、地域のブロック化現象は必然的であり、急変する時代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作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東北アジアで、日韓両国は国家利益と経済的利害打算に必要以上に執着する偏狭な姿勢から果敢に抜け出し、全人類の平和と共存というグローバルな次元で接近しようという意図が反映されています。

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は、ヨーロッパトンネル建設事業の経済性および技術分析によると、同海底トンネル建設構想の可能性を示唆するので、今後現時点で実現可能性が大きいと提示されています。

私は 1986 年 12 月から 1993 年 1 月まで満 6 年間、駐日本国大韓民国大使館の建設官勤務当時、本国から日本の佐賀県の唐津に同海底トンネル調査用斜坑を掘削中であるものを調査しろとの訓令を受け調査したのがきっかけとなり、日韓トンネル研究会と因縁をもつようになり、唐津の陳西町、壱岐、対馬などの地を数十回にわたり現場を把握し、同研究会の定期総会、分科委員会など各種会議行事に参加し 20 年過ぎました。

日韓トンネル研究会は 1993 年に純粋な民間団体が設立し研究を行ってきて、2004 年に内閣府の承認を受け NPO（特定非営利活動法人）として活動中です。私はこれに合わせ、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を、はじめに建設交通部に社団法人の承認申請をしましたが、1 年半が過ぎても承認が得られず、行政自治部に申請し 2006 年 3 月 31 日付で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として承認を受け、活動中であります。

その間、本研究院と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間に日韓海底トンネル技術および情報交流などの業務協力合意書を2006年10月24日に締結し、両国間の交流の第一章を開きました。このようなきっかけで、2007年2月21日、国会議員会館で日韓海底トンネル研究開発セミナーを開催し、討論者到大塚茂副会長が参席され、新しい知識と情報を得ただけでなく、両国関係の改善に大きな助けとなりました。また、参席された方々に技術だけでなく、経済および地域開発など幅広く理解できるようにした有意義なセミナーになりました。

本人は4月22日に釜山KNN(以前のSBS系列TV放送局、釜山地域6チャンネル、それ以外の地域は12チャンネル)TV放送局の時事診断プログラムである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関連賛否討論会に参席し、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が私たちの経済と釜山地域の開発等に大きく寄与することを主張し、ユーロトンネル開通10年の分析資料により同海底トンネル建設の示唆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周辺から良い評価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

また、釜山広域市が主催した日韓海底トンネルと釜山の選択という主題で日韓国際シンポジウムを5月14日に開催したとき、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に対する反対意見がありましたが、釜山地域の経済と地域開発に大きく寄与すると予測され、釜山市では持続的に研究発展させ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構想に対して土木関係者の理解を広げるため、大韓土木学会の大邱地方学術大会特別セッションを2007年10月11日に持てることを非常に幸運なことだと思えます。

ぜひとも21世紀の未来志向的な時代にふさわしい思考力をもつよう、共に努力しましょう。

2007. 10. 3

社団法人	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理事長	朴 慶夫
特殊法人	韓国防災協会会長	朴 慶夫
株式会社	サンボ技術団会長	朴 慶夫

日韓海底トンネル専門学会セミナー日程

1. 題 目 : 2007年大韓土木学会定期学術大会
2. 日 時 : 2007年10月11日(木) 午後2:30~5:00
3. 場 所 : EXCO (大邱テンジ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 409-1号
4. 主 催 : 大韓土木学会
5. 発表者および討論者
 - 座 長 : 朴慶夫 (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院 理事長)
 - 発表委員 : 3名 (各25分発表) — 総75分
 - ・ ホジェワン (中央大学校 都市地域計画学科 教授)
 - ・ イジョンチュル (釜慶大学校 建設工学科 教授)
 - ・ シンジャンチョル (崇實大学校 社会科学学部 日本学科 教授)
 - 討論委員 : 3名 (各15分発表、日本討論者1名参加) — 総45分
 - ・ アンヨンモ (大邱市庁 政策開発担当官)
 - ・ チョンホニョン (釜山大学校 都市工学科 教授)
 - ・ 野沢太三 (日韓トンネル研究会 会長)
 - 質疑応答 : 30分
6. 展示会
 - 日 時 : 2007年10月11日(木) ~ 10月12日(金)
 - 場 所 : EXCO (大邱展示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
5階コンベンションホール2 (展示場所 : D-11)

目 次

日韓海底トンネルの国土波及効果の検討・・・・・・・・・・	1
ホジェワン（中央大学校 都市地域計画学科 教授）	
日韓海底トンネルの土木工学的展望・・・・・・・・・・	20
・ イジョンチュル（釜慶大学校 建設工学部 教授）	
東北アジア繁栄のための日韓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	31
EU（ユーロ連合の事例からの教訓）	
・ シンジャンチョル（崇實大学校 社会科学学部 日本学科 教授）	